“전법 앞에 종단 없다, 한국불교 세계로”

국제포교 40년 목탁 울림 목탁 혜은 스님



목탁 혜은스님은 미얀마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서울 종로에서 미얀마문화원과 붓다사리박물관을 운영중이다.

서울 종로 청진동에는 미얀마문화원과 국제붓다사리박물관이 있다. 2008년 개원한 이곳은 목탁(木鐸) 스님으로 우리에게 더 잘려진 혜은 스님이 운영하고 있다. 스님이 문화원장이라니? 보통 재외문화원은 해당 국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경우 1980년대부터 미얀마 불교계와 깊은 인연을 이어온 스님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주한 미얀마 명예대사 1호이기도 한 목탁 혜은 스님은 미얀마문화원, 주한 미얀마관광청장,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장, 국제붓다사리박물관장과 함께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총재 등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다.

1987년부터 무사고 운전 기원 자비목탁 달기 운동을 펼쳐 이제는 ‘목탁 스님’으로 알려진 목탁 혜은 스님을 만나 그동안의 전법 포교에 대한 소회와 한국불교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40년 교정 교화, 국제봉사로 이어져

목탁 혜은 스님은 1970년대 말부터 교정 교화 운동을 벌여 1980년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교정 교화 1세대다. 사형수의 대부로 불렸던 삼중 스님을 비롯해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등이 오랜 기간 교정 교화를 이어오시다 최근 입적하시고 남은 몇 안 되는 스님 중 하나다. 1989년 제41회 세계인권의날 목련장훈장 인권협회 대통령 포상과 조계종 포교대상 특별상을 받기도 한 스님은 여주교도소 무연고 재소자 영치금 지원을 비롯해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남부구치소 등에서 교정 교화를 이어왔다.

스님은 “우리나라 교정 교화는 스님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며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들, 어두운 곳이 많지만, 교도소만큼 절실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길 바라는 이들이 있는 곳은 없다”라고 말했다.

스님의 꾸준한 활동에 감화된 이들은 적지 않다. 1년에 4차례 중소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교도소와 장애인 시설을 지원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 임원 부인 등 50여 명이 스님의 원력을 이어 국제불교봉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국제봉사, 미얀마 인연으로 시작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교정 교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스님은 1980년대 초 우연한 기회에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한-스리랑카 불교친선협회 구성을 추진, 협회 결성의 초석을 놓게 됐다. 이후 1994년 자연스럽게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었고, 우꾸마라 스님을 비롯하여 우킨쉐이 당시 미얀마협회 회장이자 미얀마경제연합회장 등과 인연을 쌓게 됐다. 그 영향으로 한 · 미얀마친선협회가 미얀마에 만들어졌다.



1980년대 교정 교화 1세대
1990년대 해외 포교에 나서
한국 · 미얀마 가교역할 자임
학교 · 우물 건립 등 앞장서

몽골에 나무 심기 등 확대
세계불교 아우르는 ‘법왕청’
구성에 동분서주 원력 모아

“현대불교신문사 창간30년
전법 포교 30년 역사 닿아”
‘범종단 포교지’ 역할 당부

스님은 “미얀마를 돌아보니 맑고 순수한 그들의 모습과 불심에 놀랐다. 마치 우리의 과거를 보는 듯한 모습에 저절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회고했다.

혜은 스님은 미얀마를 돌아보고 나서 이들을 돕는 길은 먹고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1997년 미얀마에 기술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원을 세우자 미얀마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당시 미얀마 정부 국장이 와서 필요한 부지를 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했고, 함께 부지를 돌아봤어요. ‘기술학교가 세워지면 2~300년은 이어가야 할 곳이고 미얀마 국민 먹고살 것을 가르치는 곳이니 당신이 더 좋은 위치를 알지 않겠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얀마에서 계획 중인 신도시 땅 5만 평을 무상 불하 받게 됐고, 건립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스님은 2002년 한국에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친선교류협회를 만들고 기술학교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2003년 관음종 홍파 스님의 도움으로 기공식을 열었다. 이어 스님은 본지와 미얀마 학교 화장실 건립, 우물 파기 운동 등을 벌여 미얀마에 부처님 자비를 전했다. 이 공로로 스님은 2007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건국최고훈장 및 칭호를 받아 대승정으로 추대됐다.

몽골 ‘생명의나무 심기’ 등 세계교화

스님의 국제전법 원력은 몽골에까지 미치고 있다. 2023년부터 몽골과 불교 교류를 확대해 2024년 5월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에서 몽골 불교계와 함께 한국의 연등회 제등행렬을 재현하여 연등회 문화를 전하기도 했다. 또 2024년 몽골 정부, 몽골 불교계와 공동으로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5만 평 대지에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을 진행하고 몽골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스님은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세계지도자들과 불교도들이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 부처님 세상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결국 이러한 세계 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불교법왕청과 같은 중심체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이를 구성하는데 원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불자수를 보면 기독교신자수보다도 많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아쉬움을 느낀 점은 가톨릭 교황청과 같이 불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2010년부터 세계불교법왕청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불교국가를 다니며 호소하고 있다. 먼저 스님과 인연이 깊은 미얀마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베트남 등을 방문해 해당국이 승왕과 지도자들을 예방하고 법왕청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승불교권인 중국과 일본도 방문하는 등 꾸준히 이를 추진하고 있다. 스님의 직책 중에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소임이 들어있는 이유다.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법왕이 나온다면 장자종단인 조계종 종정 큰 스님이 법왕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왕 · 종정 스님 등 각국의 큰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교류단체를 만들고 불교국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해야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멀리 퍼질 거로 생각합니다.”

본지 30년, 범종단 포교 증진 기대

스님은 “범종단지인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은 불교계에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교계 언론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 종단이 운영하는 종보들과 달리 다양한 종단, 그리고 소속이 없는 스님들까지 아우르는 신문은 소중하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정치적 내용보다 문화와 전법 포교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역할에 매진해줘 감사하다. 우물파기운동, 기술학교 건립, 나무심기운동 등 종단을 떠나 불제자로서 해나가야 할 일에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해주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름없는 스님들, 그리고 재가불자들이 묵묵히 전법 포교, 봉사와 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30년간 꾸준히 이들을 알리고 주목했듯 앞으로도 범종단 대표 전법포교지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를 기원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광장서 연등행렬.



몽골 생명의 나무심기 식수식.



미얀마 정부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모습.



미얀마 기술학교 학생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웃고 있다.



미얀마 기술학교 개원식 모습.

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에서는 자만하지 않고 중단 없는 일정을 보내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고통 받는 이웃에게 헌신적 봉사를 하는 숨은 자랑스러운 인물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국내외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하겠습니다.

- 후진국 빈민촌 공동우물파주기 운동
- 신뿌출가의식 지원
- 어린이 교육지원
- 코리아기술종합대학 운영지원
- 의료(안과 치과) 지원
- 의료 약품지원, 생활용품자원
- 장학 장려금 지원



국내외 봉사단 활동에 같이 동참하실 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016-0537-9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